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 | |
| | 2020. 2. 5.(수) / (총 4매) | | | |
| 배 포 일 | | | | |
| 바이러스분석과 | 과 장 | 한 명 국 | 전 화 | 043-719-8190 |
| | 담 당 자 | 정 윤 석 | | 043-719-8192 |
| 감염병진단관리과 | 과 장 | 이 상 원 | | 043-719-7840 |
| | 담 당 자 | 김 갑 정 | | 043-719-7848 |

질병관리본부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성공유전정보 공개

- 치료제·백신 개발 등 위해 과학계와 공유 예정 -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*하는데 성공하였으며, 이를 백신·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.

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: BetaCoV/Korea/KCDC03/2020

-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호흡기 검체(가래 등)를 세포에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하였으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하였다.

* 생명 기본단위인 세포를 분열·성장·증식을 반복하여 그 개체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며,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배양할 수 있음

-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바이러스 유전정보에 따르면,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(우한, 광둥), 프랑스, 싱가포르,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(99.5~99.9%)하였으며,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.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(WHO)의 GISAID* 등에 등록되어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* GISAID: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으로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이 등록되어 있음

□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“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, 치료제,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,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”고 밝혔다.

* 분양절차, 방법 등 추후 공지 예정

*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‘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(질병관리본부 ’20.2.3)’ 사항 반드시 준수

<붙임>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유전자 계통 분석

붙임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유전자 계통 분석



